메트로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호남재벌 씨 말릴겨?

금호산업 인수전 본격화… 박삼구 회장 위기 p/5

삼성·롯데·신세계·CJ·애경 등 거물들 눈독
아시아나항공이 주 타깃… 입찰가 1조 넘을 듯

"5년 내 그룹 매출 20조원" 현대百 정지선 '공격경영' p/12

리디아 고, 호주오픈 우승… 통산 6승 p/20

박근혜 정부 4월 위기설 '모락모락'

민노총 총파업·보선 등 악재 줄줄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3일 앞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4월위기설'이 돌고 있다. 위기설은 정치권에서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번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집권 3년차 박근혜정부가 맞닥뜨린 난제들, 민감한 민심동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위기 요인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결의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2015년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4월 중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강력한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계획은 4년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태풍의 눈이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전공노는 오는 3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4월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근혜(왼쪽)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 동력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계의 강도 높은 투쟁은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유독 노사대화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봄 이사철을 맞아 심화될 전세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수도권 전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올해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 16일) 등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벤트 역시 '4월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 맞아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에는 악재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고민이 더해졌다.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가 돌발악재로 변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인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돌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됐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입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론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 별세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 박영옥 여사가 21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사진은 부부의 다정했던 생전 모습 /연합뉴스

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지체기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박영옥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는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이어 대해 "(박 대통령이) 아버지·어머니 성격 좋은 것을 반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은) 다 외로운 자리"라며 "(떠난 뒤에도 박 대통령을) 가끔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제가 감히…곧 보시려고 비우을 다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설 명절 이전 사의를 표명해 수용됐지만 형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서실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 실장은 떠나는 날까지 안수안게 사항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이완구 "세월호 인양, 공식보고 받은 뒤 결정"

유가족 선체 인양 요구에 문제 해결 약속

이완구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열린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호소하며 무릎 꿇고 오열하는 한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는 22일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총리로서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산의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체 인양 요구를 받자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한다. 제 생각이 있지만 정부기관으로서 절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내일이라도 공식보고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소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총리가 힘써서 제발 배를 좀 올려달라"는 한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가슴이 미어진다. 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그대로고 유가족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총리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소통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윤아기자

<한국형 전투기>

18조원 KFX 사업, 미래 먹거리까지 달렸다

한국 군수산업 도약 발판 계기…KFX 사업 해외협력업체 기술이전이 관건

대한항공이 에어버스D&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22일 전국지인서 이들 앞으로 다가온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재입찰에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됐다. 록히드마틴과 손을 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양자대결 구도다. 현재 조짐은 1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권을 누가 따낼 것인가,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냐다. 하지만 KFX 사업에는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인 군수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 100대 무기 제조기업 동향(2013년)'에 따르면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주도하던 세계 무기시장 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한국·브라질·인도 등 신흥 무기제조국가들의 약진에 따른 변화다.

이들 신흥국들의 비율은 전체 시장의 3.6%에 불과하지만 세계 무기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무기시장의 강자인 미국은 군수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다. 한국의 약진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FX 사업의 유력한 후보인 KAI는 한국의 군수산업에서 주목받는 존재다. 김대중정부 시절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자에 허덕이던 민간기업을 통합해 만든 회사로 이제는 흑자기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SIPRI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9계단 오른 매출 순위 6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KAI 지분 10%를 확보한 한화그룹이 욕심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과 함께 핵심사업으로 키울 야심이라는 설과 함께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KFX 사업권마저 따낼 경우 날개를 달게 된다. 하지만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군수업계로서 자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록히드마틴이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세계시장의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는 지난해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SAAB)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생산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승승장구하고 있다. 브라질 공군은 이미 이 업체들이 만든 그리펜NG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마쳤다. 사브는 그리펜NG 전투기 판매를 조건으로 앞으로 10년간 기술이전을 포함해 산업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브라에르는 이로 인해 군용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 다소사와 협력을 추진 중인 인도 역시 군수산업 육성에 열심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벵갈루루의 옐라항카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개막식에서 "무기 국산화율 5년 내에 70% 론"을 선언했다. 그의 선언 직후 어스라일은 "인도 내 무기 합작 생산과 기술 이전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설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이 설 연휴 하루 전인 17일 오후 서울역, 용산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지역 주요 귀성길 포인트에서 설 귀향 특별 배포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귀향길 시민들을 위해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긴 신문과 함께 동아오츠카의 두 팔이 제공한 선물을 배포했다. /손진영기자 son@

문재인 "박원순 시장 지켜낼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22일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시장과 만나 1시간이 넘게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 생활정치 구현 등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우리 당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정당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그 과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시민중심의 시정과 생활정치로 높이 평가받은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오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어 새누리당의 '박원순 저격수' 위원 거론하며 "자기 대선주자를 흠집 내려는 일종의 대선공작으로 우리 당은 단호하게 그 공작에 맞서 박 시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기자들에게 "(문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이런 가지로 잘 하고 계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당을 잘 이끌어주셔서 서울시도 좀 편하게 하고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로서의 경쟁에 대해서는 "협력만 하는 사이"라며 "왜 경쟁의 힘만 얘기하느냐. 협동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한양도성 남산구간을 동반산행하며 문 대표가 박 시장의 재선 지원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 2위를 달리고 있다.

/송병형기자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기간 양자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와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외교지평을 중동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해외건설 진출 50주년과 중동진출 40년을 맞아 2000년대 후반 이래 얻고있는 '제2의 중동붐'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이행촉진 등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북핵문제 해결·평화통일과 관련해 중동국가들의 긴요한 협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교통·보건·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신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에너지·건설·투자·보건·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독보적인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과 문화행사, 경제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난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차원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정윤아기자 jya01@

김훈 중위 사망 17년 만에 순직 추진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 사건은 군 의문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사망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간신히 순직 처리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입법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 김 중위를 비롯한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년이 지나서, 게다가 국방부의 조치나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서 고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의 물꼬가 트인 것은 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다.

고 김 중위의 사인을 두고 국방부는 일관되게 자살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 결정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김슬아기자

그리스 총리 "협상 성공했지만 더 큰 어려움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협류 구제금융 프로그램 4개월 연장 합의 내용을 내각에 설명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아테네의회에 도착하고 있다. 그리스는 23일까지 현행 구제금융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개혁 정책들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치프라스 총리는 "중요한 승리"라고 자평하면서도 "더 큰 어려움이 곧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세계 중심은 中 아닌 美"

오바마 TPP 타결 촉구…TPA 합의는 임박한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칫하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냈다.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국이 어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신속협상권(TPA)에 대한 조처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며 "이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현재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는 조치다.

TPA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의 공화·민주당 협상팀이 TPA 부활을 가로막아온 대부분 이견을 없앴다고 이날 보도했다. 행정부에 TPA를 허용하면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한국 TPP 참여 여부는 유동적

한편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12개 참여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늦게 합류하는 만큼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등의 '입장료'도 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AP 지지를 정부차원에서 이미 표명했다.

하지만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중간재 수출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경제 실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국현기자 ktlee@metroseoul.co.kr

벤틀리 향수·포르셰 청바지…

명품차 액세서리·의류 진출 활발

람보르기니 남성 수영복(168 달러 약 18만5000원), 테슬라 토트백(300 달러 약 33만1500원), 포르셰 청바지(400 달러).

뉴욕타임스(NYT)는 명품차 브랜드를 단 고가 액세서리·의류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들의 신작 발표회인 지난주 뉴욕패션위크에서 포르셰는 승용차가 아니라 겨울 코트, 부츠, 선글라스를 런웨이에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사의 로고가 찍힌 블랙베리 폰을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장난감에서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63개 품목에 걸쳐 자사 로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온라인숍을 통해 페라리 로고가 들어있는 손목시계, 주사위, 재킷 등을 판매중이다.

영국의 고급 세단인 벤틀리의 로고 역시 기구, 스키 장비, 핸드백에 등장한다.

이 같은 명품차 브랜드의 시장 확대는 명품차 소비자들에게 '내 차의 브랜드는 내가 쓰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크다고 NYT는 분석했다.

벤틀리 승용차를 소유한 한 인사는 '벤틀리 향수'(사진)에 이 회사 로고가 찍힌 티셔츠까지 입고서 "무엇인가 완성이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명품차 업계가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벤틀리 관계자는 "28세의 젊은이가 벤틀리 승용차는 못 사지만 '벤틀리 손목시계'는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국현기자 ktlee@

아베 정권 '자위대 족쇄 풀기' 가속화

해외 활동범위 확대 추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명제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 여당간 협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국현기자 ktlee@

금호산업 인수에 롯데·신세계 눈독

25일 접수마감… 치열한 눈치작전 전망
결과따라 재계지형·호남민심 출렁일 듯

올해 인수합병(M&A)시장의 최대 매물은 금호산업이다. 인수전이 25일 시작된다. 아직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한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달린 만큼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재계 지형도는 물론, 호남 민심까지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보유 중인 금호산업 지분 57.48%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25일 마감한다. 이후 한 달간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격

2014년 시공능력순위 20위의 금호산업이 올해 M&A시장 최대어로 평가 받는 데는 금호산업 뒤에 얽혀 있는 지분 관계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가진 최대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저가항공사 에어부산 지분 46.00%와 금호터미널 지분 100%, 금호사옥 지분 79.90%, 아시아나개발 지분 100%, 아시아나IDT 지분 100%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 하나를 가져오면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항공화물 물류사업 ▲연매출 1100억원 규모 기내식 사업 ▲시내면세점 운영권 ▲시공순위 20위의 건설사업 등 알짜 사업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시장은 '건설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가 매물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에 실패할 경우 재계에서의 입지가 급속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삼성·롯데부터 호반건설까지 추측 난무

금호산업의 이런 위상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호반건설이 딜로이트안진과 LOI 제출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과 롯데, 신세계, CJ, 애경그룹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삼성그룹(신라면세점)·롯데그룹(롯데면세점)·신세계그룹(신세계조선호텔면세점)은 기내면세점, CJ그룹(CJ프레시웨이)·신세계그룹(신세계푸드)은 기내식 등 식자재유통, CJ그룹(CJ대한통운)·롯데그룹(롯데로지스틱스)·애경그룹(제주항공)은 항공물류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을 비롯한 유통회사들의 항공사업이 현실화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면세점 확보에도 유리하다"며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전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 보유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보고 1원이라도 더 많은 값을 써내면 금호산업은 박 회장의 것이 된다.

최근 '한일 수교 관광교류의 밤' 행사장을 찾은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 "시장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모든 게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제는 박삼구 회장의 자금력이다. 17일 종가 기준 채권단 지분 가치만 약 5650억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할 경우 인수가는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현재 박 회장이 동원 가능한 자금은 15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치열한 인수전, 승자의 저주 우려도

인수전이 치열해질수록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박 회장은 금호산업의 몸값을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벌써 5배 가까이 급등했다. 누가 금호산업을 인수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박삼구 회장의 막강한 정관계 영향력도 변수다. 최근 토러스증권은 "박 회장의 정관계 네트워크가 금호그룹 해체를 유예시켰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10년 넘게 전경련 회장단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혼맥을 통해 LG·대림·대상·동국제강그룹 등과 사돈관계로 연결돼 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호남 재벌이라는 상징성도 인수 주자들에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금호산업이 박 회장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호남 기업은 씨가 마르게 된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호남기업들에 금호산업은 단순한 건설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결과에 따라 지역민들도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인수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 의지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박삼구 회장의 인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괜히 몸값만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의문시되고 있지만 박삼구 회장은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서라도 반드시 금호산업을 인수할 것"이라며 "꼭 박 회장이 인수하지 않더라도 굳이 가격을 높여 자금에 발목이 잡힐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ark[illegible]@metroseoul.co.kr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1961.45 (+3.22)	609.10 (-1.06)

금리	환율
2.06 (-0.040)	1105.20 (+3.70)

대학생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토부와 진흥원은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서류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건설·물관리, 플랜트, 도시·건축·주거환경, 국토공간정보, 교통·물류, 철도, 항공안전기술 등이다. 만 30세 이하 국내·외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4인 이내 그룹이면 응모할 수 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준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등 모두 10명(팀)에게 22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김학철기자 kimc[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1-1561
발행·편집인 남규호
사장·총괄인 김윤희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51
2002년 5월 31일 등록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illegible]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려면

연말정산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13월의 세금폭탄'과 '카드사 오류' 등 후폭풍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에 손을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새로운 1년간의 농사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때다.

연말에 웃기 위해 연초부터 준비해야 할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아본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 주목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 합계액을 비교해 연말에 다시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공제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소급적용안 등 합의되지 않은 보안대책에 혼란과 불만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개정된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적립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등 세액 공제 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김영리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별도한도 300만원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외 퇴직연금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펀드로 10년 후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소장펀드는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 부트텍 전략 써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혼합 사용도 필요하다.

한아름 KB투자증권 금융상품지원팀 세무사는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소개됐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은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지만 예외도 있다"며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고 며 "연초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미란기자 alive0203@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주택시장 진단 전망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팀장	임재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
내집 마련 적기	- 하반기 - 지역 내 급매 우선 고려 -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	- 빠를수록 좋아 -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 상반기 - 저금리 기조, 청약제도 개편 전세난 심화 등 매매 전환 기대	- 빠를수록 좋아 - 부동산시장 회복 국면	올해 전반적 고려할 만해 - 청약제도 간소화, 저가 수요↑ - 초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내집 마련 기존 VS 신규	청약통장 유무 따라 선택	- 새 아파트가 유리 - 기존 아파트, 연식 오래 돼 - 신도시, 도심 재건축 아파트 봐야	- 신규 아파트 선호 추세 -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120% 넘지 않는 것 선택 입주 10년 이상 아파트 피할 것	- 가격 차 크지 않다면 새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 적고 서비스 면적 유리	- 신규 분양권 시장 유리
적정 대출 수준	- 대출상품, 금액 보다 상환 능력 따라 선택	- 집값의 30~40% 원금, 이자부담이 월소득 30~40% 수준이 적정	- 집값의 30~40% - 소득 보장, 저금리 유지 시 50%까지도 고려	금액 한정하기 보다 비중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 자산, 나이, 목적, 금액 고려	- 집값의 30% 내 적정
유망 지역	- 송파위례, 화성동탄2 신도시 - 서울 도심 재개발 강남권 재건축 지역	- 신도시 동탄2, 위례, 김포 - 서울 재건축, 재개발 지역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지역 - 위례, 광교, 미사, 동탄2	- 강남 3구 재건축 단지 - 신도시 택지지구(위례, 광교, 동탄2, 미사강변)	- 3월부터 분양시장 본격화 -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미분양 우려	미분양 감소 예상 - 입지, 규모, 세대수, 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것	- 미분양 물량 늘지 않을 것 - 적정 분양가에 청약 수요 많아	양극화 뚜렷할 것 입지여건 달라는 지역 미분양 가능성 커	- 입지에 비해 분양가 높은 곳은 미분양 가능성 높음	- 당장 미분양 우려는 적어 - 동탄, 세종시, 대구 공급과잉 우려
분양가 하향기까지 유지될려면?	-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분양권전매제도 완화 등 제도 변화로 하반기도 활기 예상	- 인위적 조정은 어렵다 - 규제완화, 저금리 기조 유지 - 하반기 분양 물량 줄지 않아	- 집값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 정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의지 저금리 기조 이어져야	- 적정 분양가 책정	- 전세 가격 움직임 - 적정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장 영향	과거 재개발 단지 시세 보다 높여 미분양 사례 있어 - 가격상승 미약한 단지 늘지만 청약 저조해야	- 분양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 서울 도심은 소폭 상승 - 지역 특성 따라 반영	-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인기 지역 분양가 오를 가능성 커 조합원 부담금 줄이기 위해서 일반분양 인상 올기며	- 오를 가능성 큐 건설사 최대 수익 내야 할	-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듯 - 서울 공공택지 구득난 지제 소폭 상승
거래시장 전망	- 주택거래 증가 예상 - 전세가율 높은 지역 투자력 보강된 지역 중심	- 꾸준히 거래 이어질 듯 - 전셋값 상승으로 심리적 수요 반영	- 거래량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 금리 인상 변수	- 거래량 순증, 가격 회복세 - 매매 이전 수요 실수요자로 재편 - 중소형, 신규분양, 수도권 중심
상반기 집값 전망	- 가격 상승 분위기 유지 - 지속적 효력 한계	- 소폭 상승 - 이사철, 신혼부부 수요 증가	보합 또는 2%미만 상승 예상	- 중소형, 저가주택 소폭 상승 중대형, 대형 약보합 예상	- 실수요자들 호기 뛰면 관망세 - 가격 크게 오르지 않을 것 - 추격매수세 통한 매매수요 한계
서울 전세난 전망	- 재건축 멸실 후 공급 가시화될 최소 2년 이상 지속	-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 전세 물량 자체가 없어	올해 서울 재건축, 재개발 5만 가구 이상 멸실 - 향후 3년 전세난 지속 전망	올해 내내 지속할 전망	- 전셋값 지속 상승 전망 - 월세 전환+재건축 이주수요 전세 품귀 이어질 듯
임대주택 공급 외 전세난 완화 방안	- 매매지역 확보로 거래량 늘려야 - 행복주택 시건 가속화 - 장기전세아파트 공급확대 선행	-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 다주택자 임대사업 지원 - 민간 역할이 중요	전세 임대차 기간 3~4년 연장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 -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것도 방법	- 공급량 늘려야 함 - 민간 지원 확대 유도하는 인센티브 필요	- 임대사업자 추가 규제완화 - 매입임대 확대→공급 확대

“올해 내 집 마련 적기… 신규분양 잡아라”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설 연휴가 끝난 2월 마지막 주,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봄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활기가 올 상반기 절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내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분위기도 가속화되며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금이 내집 마련 적기라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나서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분위기다. 적절한 지역을 찾는 것부터 적정 대출 수준까지 생각해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청약통장 있다면 신규 분양 도전"

22일 메트로신문이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라면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에 도전할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간소화 ▲저금리 기조 ▲초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수도권 전셋값 상승 ▲역대 최대 분양 물량 공급 등을 이유로 올해가 내집 마련 적기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세부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임재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상반기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올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연화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하반기를 꼽았다.

김연화 팀장은 "내집 마련 적정 시기는 하반기 중"이라며 "지역 내 아파트 수급 조절과 급매 등을 지켜보며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 "집값의 30~40% 적정"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적정 대출 수준은 금액을 한정하기 보다 소득과 집값을 고려한 비율로 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30~40% 정도가 적정한 대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해근 위원은 "소득이 보장되고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40%까지도 괜찮아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4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과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해근 위원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반 분양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조은상 팀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최대 수익을 내야하는 데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집값은 소폭 상승…"전세난 3년은 더"

올 상반기 주택 거래시장은 지난해 분위기를 이어 활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며 매매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최대치를 기록한 거래량은 올 해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매매시장이 실수요자로 재편됐다"며 "중소형, 신규분양,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집값은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함 본부장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호가가 뛰면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짙다"며 "추격매수세를 통한 매매수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화 팀장은 "과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약발이 2~3개월 정도 단기에 다한 것을 고려한다면 가격 상승 분위기는 유지되겠지만 지속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전세난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소 3년은 더 지속된다는 예측이다. 김연화 팀장은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후 이 지역 공급이 가시화될 때 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양해근 위원 역시 "올해 서울에서만 재건축, 재개발로 5만가구 이상 멸실이 발생한다"며 "향후 3년은 더 서울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위원은 "전세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루 아침 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함영진 본부장은 "재건축 이주수요와 전세의 월세 전환 분위기가 맞물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농협·신한·하나…금융사 CEO 잇단 교체

내부·외부후보 경쟁 치열할 듯

농협·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CEO)가 바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최근 내부 후보와 외부 후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다음주 중 이사회를 열고 임종룡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임 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데 따른 것이다. 직무대행 자리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섭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사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들어간다. 회추위는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1명, 사외이사 2명, 이사회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이뤄진다. 이들 5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농협금융 사외이사는 전홍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김준규 전 검찰총장,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외부 헤드헌팅업체 추천 등으로 후보군을 만들고 이들 가운데 3~5명을 추려 면접을 거친 후 최종 후보자를 뽑는다.

내부 후보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임 회장과 지난해 예금·대출·펀드·퇴직연금 등 각 부문에서 시중은행 중 성장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거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지주사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아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외부 출신이 올 가능성도 있다. 농협중앙회와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을 힘 있는 외부 출신을 지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앞서 농협금융은 신동규 전 회장이 중앙회와의 갈등으로 물러났지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임 회장이 취임해 경영을 안정시켰다. 그만큼 차기 회장도 장관급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부 출신으로는 지난 2013년 2월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금융위원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위원장을 맡기 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를 지내 농협과도 인연이 깊다.

이밖에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투병 중인 신한금융은 오는 24일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차기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투자·신한캐피탈 사장의 선임을 논의한다.

자경위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특히 한 회장의 의중이 차기 행장 선출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신한은행장은 2017년 임기가 끝나는 한 회장의 후계자 경쟁에서 강력한 현직 프리미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 행장 선임은 신한금융의 미래에 중요한 일로 평가받는다.

차기 행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김형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임영진 신한은행 부행장(현 행장 직무대행) 등이다.

다만 차기 행장은 신한 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사장이 극심한 내분 사태를 초래했던 신한 사태는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 추가 징계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위성호 사장과 임영진 부행장은 라응찬 진영으로, 이성락 사장은 신상훈 진영으로 분류된다. 김형진 부사장과 조용병 사장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 진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의 임기도 내달 만료된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캐피탈의 지난해 실적이 좋은 만큼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미 작년에 연임됐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도 있다.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 16일 차기 회장 후보로 김정태 현 회장과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 3명을 선정했다.

회추위는 23일 후보자 3명을 상대로 면접을 한 뒤 차기 회장 후보자를 내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의 재임 시절 농협금융이 약진했고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선임 후 KB가 급격히 정상화됐다"며 "CEO 경쟁력은 이제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인 만큼 올해 금융권 CEO 인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내부 검증과 여론의 평가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metroseoul.co.kr

현대重 "체질개선이 선결요건"

"현대중공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조직 효율화·비용통제 등 체질개선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단협 타결 이후 주가가 반등 기미를 내보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상화 작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타결된 직후 주가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중공업은 전일 대비 1.70% 상승한 1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소폭 오르면서 조선주인 현대중공업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증권이 내놓은 '유가 민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조선주는 국제유가가 주간 1.0% 상승할 때 평균 0.27% 오른 바 있다.

장동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수 개월간 임단협 이슈가 있어온 만큼 이미 주가에 이러한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이날 현대중공업 주가가 소폭 오른 것은 임단협 타결 이슈보다 국제 유가 흐름과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계열사 사업부문의 재편과 구조조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재편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 적자 프로젝트 리스크 최소화,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 정상화 작업이 선재되어 주가가 회복할 것"으로 보았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저유가로 어려워진 수주 환경 등에 비춰봤을 때 조직의 효율성과 비용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라며 "리스크 사업인 해인 육상 플랜트 종료, 삼선 마진 안정화 시그널, 비용통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문제도 주가에 악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로 연체 약 63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게 주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이 곧 항소하겠지만 수익성 위험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전세가율 90% 넘는 아파트 속출 전세난 여파로 최근 서울에서도 전세가율 90% 이상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시민이 전용면적 59㎡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900만원에 불과한 서울 성북구 유명동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관, 코스닥랠리 주역… 어떤 종목 샀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상승랠리를 이끈 주인공은 국내 기관투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관은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주로 사들이면서 코스닥 상승세를 견인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은 4564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을 틈 타 1857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했다.

올해 기관은 다음카카오(1888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또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은 1575억원과 CJ E&M 1025억원, 컴투스 456억원, 오스템임플란트 406억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46억원 등도 매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 다음카카오를 92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또 서울반도체(-585억원)와 컴투스(-365억원), CJ E&M(-306억원), 파라다이스(-266억원), 오스템임플란트(-231억원) 등의 종목들도 내다팔며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코스닥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IT 소재부품·장비주에 관심을 보였다. 대장주 셀트리온을 463억원 어치 사들였고, 이오테크닉스(369억원)와 실리콘웍스(213억원), OCI머트리얼즈(168억원), 파트론(161억원) 등의 종목들도 매수했다.

한편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반 매도에 나서 올해 각각 4161억원, 1525억원 순매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光나는 한화 태양광

작년 이어 올해도 흑자 기록할 듯…OCI·웅진에너지도 호조세

난항을 겪던 국내 태양광 업계가 빛나는 광채를 드러내며 도약 중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상무)이 이끄는 한화솔라원을 필두로 지난해 OCI 등 태양광업체들이 흑자전환했거나 기록할 전망이다. 유가하락으로 소재 부문 매출은 타격을 입었지만 꾸준한 태양광의 수요증가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뚝심이 빛을 보고 있다. 태양광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이지만 석유는 수송수단의 에너지원이다. 경쟁관계로 보기 힘들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태양광 발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 실장의 전략이 통한 것이다.

◆한화, 4년만에 흑자 기록 예측

한화는 태양광 산업 진출 이후 첫 연간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3851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을 각각 올렸다. 4분기 역시 소폭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중국 솔라펀을 인수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한화는 사업 진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11년 19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고, 이듬해에는 25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 2013년 영업손실은 1040억원으로 한화큐셀의 실적이 반영돼 적자 폭은 줄었으나 흑자전환에는 실패했다.

작년 한화솔라원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3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했지만 2, 3분기 각각 약 70억원, 120억원의 영업손실이 생겨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화큐셀이 작년 3분기까지 4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같은 기간 약 160억원에 달하는 한화솔라원의 손실을 상쇄했다.

4분기 역시 한화큐셀의 영업이익을 한화솔라원이 일부 잡아먹었지만 총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는 비슷한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화는 지난 12월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을 합병해 태양광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된 업체는 세계 1위(3.3GW) 규모의 셀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한화큐셀 덕분에 재무구조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는 세계 태양광 시장이 발전량 기준으로 2014년 43.6기가와트(GW)에서 2020년 83.3GW로 연평균 15%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전지의 주재료인 폴리실리콘 등 소재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OCI·웅진에너지, 작년 흑자전환 성공

국내 태양광 기업 OCI는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OCI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1356억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45억원, 당기순이익 500억원으로 각각 흑자전환했다.

이우현 OCI 사장은 "태양광사업은 저유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태양광 발전 수요가 44기가(GW)였고 올해 53기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을 예측한 바 있다.

태양전지용 웨이퍼 전문업체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집계 결과 매출 361억원,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3분기 적자전환 이후 14분기 만에 기록한 영업흑자다.

웅진에너지 관계자는 "국제 유가 하락과 경쟁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감소된 상황에서 거둔 흑자"라며 "주요 경쟁자인 중국 업체 대비 우수한 품질 우위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등 제조 공정 전반에 걸친 효율화 작업이 4분기 흑자전환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소리기자 %%%@metroseoul.co.kr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사진은 한화큐셀이 건설한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 24.3MW 태양광 발전소. /한화그룹 제공

전기차 시장 '브레이크 없는 질주'

유가 급락에도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세 지속…애플도 눈독

국제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도 앞다퉈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

전기차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이 대표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 성장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전기차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가 중국 전역을 주행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도 전기차 자회사인 마힌드라 레바의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아르빈드 매튜를 선임했다. 전기차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르빈드 매튜 CEO는 자동차 기술 부문 전문가다. 그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포드자동차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 매튜 CEO는 인도 포드 지사 대표로 활동하다 인도 타타자동차로 옮겨 최근까지 신소재 사업본부 총괄 CEO로 활동했다.

전기차 전문지 인사이드EV (insideevs.com)의 집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등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은 지난달 5924대로 전년 동기보다 6.74% 증가했다. 이로써 월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간 판매량은 11만9710대로 전년보다 22.77%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유가가 40%가량 폭락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전기차 1만2474대가 팔려 월간 판매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료비 절약이라는 전기차의 최대 강점이 유가 하락으로 약해져서 전기차 인기가 추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이 같은 예상은 대표적 고연비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감소로 염증되는 듯 보였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작년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는 총 45만2152대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올해 1월에도 2만5312대로 작년 1월에 비해 8.1% 감소하는 등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유가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석유 등 에너지 비용 하락은 전기 생산비 하락으로 이어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도 도움이 된다"며 "유가 하락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기자 lun@

쉐보레 볼트

서울상의 부회장에 정용진 등 3명 합류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에 정용진(47·사진) 신세계 부회장, 이만득(59) 삼천리 회장, 정몽윤(60)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이 합류한다.

서울상의는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상의 정기의원총회에서 정용진 부회장, 이만득 회장, 정몽윤 회장 등 3인의 서울상의 부회장 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13년 박용만 회장이 서울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2013년)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2014년)이 회장단에 합류한 데 이어 이번에 회장단이 추가로 보강돼 경제계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서울상의는 기대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서울상의 정관상 비상근 부회장은 2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번 선임안이 의결되면 부회장은 현재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의원총회와 상임의원회 등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상의를 대표해 신년인사회와 정책간담회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한다.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담회(1월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담회(1월 26일) 등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선임 부회장의 면면이 젊고 혁신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분들이고 유통·에너지·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 서울상의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최근 대표자가 변경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도 부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송연주기자 rsunju@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공개한 사건 당시 CCTV 동영상 캡처.

삼성·LG '세탁기 논란' 점입가경

LG, IFA서 벌어진 사건 당시 CCTV 공개
삼성 "통상적 테스트라는 것은 억지 주장"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의 세탁기 파손 논란이 잠시 진정되는가 싶더니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더욱 꼬인 양상을 띠고 있다. LG전자는 CCTV를 공개하면서 통상적인 제품 테스트였다고 말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편집된 영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논란은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IFA 2014'에서 시내 매장에 진열돼 있던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 사장을 비롯해 조모 세탁기연구소장 상무, 전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이 증거물인 세탁기를 파손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조 사장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의 반전을 노렸다. 그는 "해당 가전제품 관매점에는 나와 함께 출장을 갔던 일행들은 물론 수많은 일반인들도 함께 있었고 바로 옆에서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만일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면 무엇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다음날 자사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를 통해 "세계 어느 가전회사도 매장에 진열된 경쟁사 제품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성능 테스트를 위한 통상적 과정이라는 LG전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실력으로 평가하자" 날선 경쟁

삼성·LG 세탁기 법정 공방 진흙탕 싸움 · 해외선 제품 품질인증 집중

삼성 드럼세탁기(왼쪽 사진)와 LG 드럼세탁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드럼세탁기 시장을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분위기다. 해외에서 높은 제품 평가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세탁기 파손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목표로 글로벌 가전시장 1위를 각각 선포한 만큼 세탁기를 포함한 생활가전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탁기 경쟁은 점입가경 상태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인한 제품 내구성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제품의 우수성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세탁기가 유럽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이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믿음은 높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를 통해 "LG전자 고위 임원들이 파손한 크리스털 블루 도어 드럼세탁기(WW9000)는 유럽 각국의 소비자 평가 매거진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삼성 크리스털 블루 도어 드럼세탁기는 영국 전자제품 리뷰 전문 매거진 '엑스퍼트 리뷰'의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소비자 평가 전문 매거진 '라드 옥 론'과 '알트로컨슈모', 프랑스 소비자 연맹지 '크 슈아지르'로부터 각각 1위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 제품은 노르웨이 넴코(Nemko)와 독일 전기·전자 전문 시험평가기관 VDE 등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같은날 LG전자도 자사 드럼세탁기가 업계 최초로 프랑스전기공업중앙시험소(LCIE)로부터 에코디자인(Eco-design)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LG 드럼세탁기(모델명 F84912WH)는 이 시험소의 까다로운 친환경 평가 항목인 소비전력량, 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배출량, 부품 사용수 등의 기준을 통과했다. 프랑스전기공업중앙시험소는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 최대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전기·전자 부품·제품을 시험 평가한다. LG전자는 이번에 인증을 받은 세탁기의 개발, 제조, 운송,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

연간 소비전력량을 156kWh에서 117kWh로 낮춰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 유럽 최고 에너지 등급 'A+++'보다 40% 가량 효율을 높였다.

환경 유해물질과 부품 사용도 최소화했다. 프랑스전기공업중앙시험소 평가에 따르면 이 제품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준 모델보다 산성화 9%, 자원 고갈 23%, 온실가스 배출량 12%, 오존층 파괴 물질 34%를 각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최대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달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제품평가 잡지 컨슈머리포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반면 그동안 컨슈머리포트 최고등급을 휩쓸던 LG전자의 세탁기는 한 단계 낮은 2위로 내려 앉았다. 삼성전자가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김성훈기자 yaw@metroseoul.co.kr

"LG 울트라 올레드TV 최고의 디스플레이"

LG전자가 프리미엄 TV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울트라 올레드TV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TV가 독일 전기기술자협회(VDE)로부터 뛰어난 화질을 인증 받았다.

VDE는 77인치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가 완벽한 블랙 색상을 표현해 명암비가 뛰어나고 색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LG전자가 22일 전했다.

미국 IT 매체의 호평도 이어졌다.

디지털트렌드(Digitaltrends)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TV 평가에서 LG 울트라 올레드 TV(모델명 65EC9700)에 별 5개 만점을 주고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디지털트렌드는 "현재 판매되는 다른 어떤 LED·LCD TV와 비교하더라도 올레드는 월등한 화질을 제공한다"며 "제품의 성능, 유저 인터페이스(UI) 구성, 사용성, 디자인 등을 고려하면 완벽한 만점"이라고 평했다.

한편 LG전자 올레드 TV는 자체 발광 소자를 사용해 무한대의 명암비, 확 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각 등 기존 TV와는 차원이 다르다. 각각의 소자가 빛을 명확히 제어해 완벽한 블랙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영역까지 세밀하고 풍성하게 색상을 표현하고, 응답속도가 LCD TV 대비 1000배 이상 빨라 잔상 없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재현한다.

/양성운 기자

삼성 SUHD TV '애드 태그' 광고 극장가 상영

독특한 형식으로 설 연휴 관객 눈길 사로잡아

삼성전자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기존과는 새로운 형식의 SUHD TV '애드 태그' 광고를 선보이며 극장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애드 태그 광고는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노출되는 영화 예고편 뒤에 꼬리표처럼 짧은 광고를 '태그(Tag)'시킨 새로운 형식의 광고다. 영화 스크린을 통해 예고편이 나온 다음 '방금 보신 이 영화, 삼성 SUHD TV로 보면 어떨까요?'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10초 분량의 영상이 이어진다.

특히 애드 태그 광고는 영화 예고편의 장르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SUHD TV 광고 카피도 차별화되어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스펙타클한 영화의 경우라면, '방금 보신 스펙타클한 영화의 감동을 최신형 초고화질 SUHD TV로 보면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드라마 형태의 영화 뒤에는 '방금 보신 드라마틱한 영화'라는 카피로 변경되서 노출된다.

애드 태그 광고는 극장 관람객들의 영화 예고편에 대하여 주목도가 높은 부분을 활용, 광고 노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세 차례 반복되는 예고편 뒤에 연계돼 노출되면서 브랜드를 보다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SUHD TV는 독자적인 나노 크리스털 기술과 리마스터링 화질 엔진을 통해 기존 TV 대비 2.5배 밝기, 64배 이상의 세밀한 색상, 더 깊은 명암비를 지원하는 제품이다.

/정혜인기자

이통 3사 모바일 전시회서 '5G 혈투'

내달 2일 스페인서 대회 개막…사물인터넷 접목 기술 주도권 경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내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 참가해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인다.

이통 3사는 5G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을 공개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에 선보일 SK텔레콤(왼쪽부터)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전시관. 이동 3사는 5G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미리 볼 수 있는 기회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통 3사의 MWC 전시 주제는 '5G가 선보일 미래'다. 세계 ICT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IoT가 5G의 속도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600㎡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의 모토는 '혁신의 신세계로의 여행'으로 정했다.

SK텔레콤은 지능과 효율·연결성 등을 갖춘 새로운 통신기술과 함께 5G 네트워크의 결합한 IoT 위치기반 인텔리전스 등 다양한 5G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한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밴드', 난청 보조 기능을 탑재한 이어셋 '스마트히어링에이드' 등의 IoT 라이프웨어도 내놓는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함께 주방·거실·세제·드레스룸 등을 갖춘 실제 집처럼 전시관을 꾸민다. 실생활에 5G기술과 Io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로 에어컨 조명 등 집안의 주요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IoT 솔루션 '홈매니저'를 최초로 공개, 자사 기술력을 과시하며 어필한다는 각오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매직 미러',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U+ LTE 무선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5G 시대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KT 전시관은 5G 인프라, 5G 액세스, 기가토피아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5G 인프라 존에서는 10G(giga) 인터넷과 5G 초고밀도(Ultra-Dense) 네트워크 등 선보인다. 5G 액세스 존에서는 9개 주파수 대역을 묶어 1Gbps의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 등 신기술이 공개된다.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총출동…리더십 경쟁

이통 3사의 CEO가 이번 MWC에서 펼치는 리더십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국제 행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CEO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통 3사 CEO 중 유일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MWC에 역대 최다 인원인 100여 명의 임직원을 파견해 5G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또 이 부회장은 시스코, 화웨이·에릭슨·노키아·IBM·NTT도코모·차이나모바일 등 글로벌 ICT 기업의 경영자와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도 주요 임원들과 함께 바르셀로나로 이동한다. 장 사장은 행사 개막 하루 전인 1일 현지에서 열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에 참석, 통신업계 관련 해결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3년 이석채 회장에 이어 2년 만에 MWC 기조연설 무대에 선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5G를 넘어(5G & Beyond)'라는 주제로 초실시간 초대용량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5G 상용화와 IoT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한편 이번 MWC는 '혁신의 최전선(Edge of Innovation)'을 주제로 전 세계 1900여개 기업이 전시 또는 각종 콘퍼런스에 참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황선준기자 sunjun@metroseoul.co.kr

태블릿 PC, 점점 작아진다

삼성전자 갤럭시A5. /뉴시스

화면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TV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 PC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큰 화면보다는 휴대성을 강조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태블릿 PC의 평균 화면 크기는 8.2인치로 집계됐다.

태블릿 PC는 평균 화면 크기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1분기 9.3인치에서 2분기 9.6인치로 10인치에 육박한 뒤 이후 계속 작아지면서 8인치대까지 내려왔다.

반면 화소 밀집도(정세도)를 나타내는 평균 PPI(pixel per inch)는 3분기 기준 201ppi로 나타났다. ppi는 디스플레이 패널 1인치당 화소(픽셀) 수를 의미한다.

201ppi는 22인치 크기의 모니터를 3840×2160의 UHD(초고해상도)로 구현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작아진 화면 크기와 달리 화질은 더 세밀해지면서 콘텐츠 감상 환경은 진일보한 셈이다.

실제 10인치대 아이패드로 태블릿 PC 시장을 개척한 애플 역시 지난 2012년부터 7인치대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고 있다.

태블릿 화면 크기의 감소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대형화 추세와는 상반된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팔린 LCD TV 중 40인치 이상의 비중이 50.7%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앞서 2013년 40인치 이상 비중이 41.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9%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40인치 이상 대화면 TV의 비중은 올해 55%, 2016년 60%, 2017년 62.6%, 2018년 64.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지난해 2분기 기준 평균 크기가 4.7인치로 2012년 1분기(3.7인치)와 비교하면 2년 새 1인치가 커졌다.

특히 애플이 잡스의 철학과 달리 지난해 5.5인치 크기의 아이폰6 플러스를 내놓고 이것이 실적 호조를 이끌면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준기자

SKT, MWC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SK텔레콤은 스마트로봇 '아띠'와 '알버트'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현장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모바일 탐험대 교실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세계 각국의 과학 꿈나무들을 만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탐험대 과정은 과학 꿈나무들이 모바일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힐 수 있도록 GSMA가 실시하는 MWC 공식 현장 프로그램 중 하나다. 스마트로봇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아이디어 개발', '제품 디자인' 등의 교과 과정도 포함된다. 참여 기업은 국내 기업으로는 SK텔레콤이 유일하며 현지 바르셀로나 대학교도 공동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15세의 다국적 어린이 25명은 SK텔레콤의 스마트로봇 '아띠'와 '알버트'를 활용한 놀이 학습을 통해 스마트로봇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실제 '명령-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다.

회사 측은 SK텔레콤의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력, 창의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향후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철순 컨버전스사업본부장은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코딩스쿨이 MWC주관기관인 GSMA에서 초청을 받은 것은 SK텔레콤의 스마트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입증받은 것"이라며 "향후 국내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확대와 코딩스쿨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SK텔레콤은 MWC 2015 현장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SKT 전시관.

미래부, 제2기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 공개 모집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제2기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3월부터 과학기술 규제 개선 옴부즈만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1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이달 만료됨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제2기 옴부즈만을 10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2기 옴부즈만은 연구개발(R&D) 성과창출, 기술이전과 사업화, 기술벤처창업 기술지주회사 등 3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하게 된다.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며 과학기술 규제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응모 자격은 ▲기업 상근 임원 경력자 ▲7년 이상 상근 연구원 경력자 ▲대학 대학원 조교수 이상 경력자 ▲5년 이상 변호사, 변리사 경력자 등이나.

옴부즈만 지원자는 이메일(kyi@msip.go.kr / seo0212@kistep.re.kr)로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선준기자

정지선 현대百그룹 회장, 은둔 벗고 '광폭 행보'

27일 김포 이어 판교·송파·송도에 아웃렛·복합쇼핑몰 오픈…면세점 사업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3·사진)이 거침없는 경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은둔 이미지를 벗고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통해 정지선식 경영을 선보이며 올해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있다.

정지선 회장은 주력 사업인 백화점·홈쇼핑에서 벗어나 패션·가구를 비롯해 최근 아웃렛·복합쇼핑몰·면세점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에 총면적만 16만5000㎡에 달하는 프리미엄아웃렛 1호점을 오픈한다. 현대가 선보이는 첫번째 프리미엄아웃렛이다. 이어 8월엔 경기 분당 판교에 수도권 최대 규모 복합 쇼핑몰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오픈한다. 9월엔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에 도심형 아웃렛도 영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엔 인천 송도 프리미엄아웃렛을 개장하고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도 2개 층 증축에 나설 예정이다.

불황 속 '황금알'이라고 불리는 면세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0일 면세점 전담 법인을 설립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면세점사업을 그룹의 전략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미래 신(新)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면세점 자체 성장성 뿐만 아니라 백화점·홈쇼핑 등 그룹 주력사업과의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며 "그간 축적된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종합생활문화기업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지선 회장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공격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패션기업 한섬(2012년)과 가구업계 현대리바트(2011년)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랐다는 업계의 평이다. 현대백화점은 또 서울 지역 사업장도 전방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가산동에 도심형 아웃렛 현대아울렛 1호점을 오픈했고 조만간 대성산업으로부터 인근의 디큐브시티백화점의 운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지선 회장의 공격적 행보는 불황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유통사업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야심찬 승부수로 해석된다. 2007년 12월 회장 취임 후 이렇다할 새로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 회장이 2017년 회장 취임 10주년을 앞두고 광폭(廣幅)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100년 이상 장수한 글로벌기업들의 생존비결은 미래를 예측하고 끊임없이 사업포트폴리오의 변신을 시도한 것이었다. 지속성장을 위해선 미래의 예측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자"며 어느 때보다 공격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직접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올해 투자 금액을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 20조원, 경상 이익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내걸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장을 멈춘 유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변화를 시도하는 정 회장의 승부수인 만큼 앞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 정 회장의 은둔 경영자에서 벗어난 공격 행보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kimbr@metroseoul.co.kr

두배 커진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내달 리뉴얼 오픈 270여개 브랜드·파머스마켓 운영

신세계사이먼(대표 강명구)은 여주 프리미엄아웃렛을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확장해 오는 24일 재개장 시즌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여주 프리미엄아웃렛은 이번 확장을 통해 기존 부지면적 8만여 평(26만4500㎡), 매장면적 8000여 평(2만6500㎡)에서 부지면적 13만7000여 평(45만3100㎡), 매장면적 1만6000여 평(5만3400㎡)으로 넓어졌고 270여 개 브랜드를 갖추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확장을 계기로 미국 뉴욕 우드버리아웃렛·일본 도쿄 고텐바 아웃렛 등과 같이 연간 10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신진 해외 명품 브랜드는 물론 다양한 국내패션, 키즈 브랜드 등 풀라인(Full line) 브랜드 매장 구성을 통해 고객들의 더욱 폭넓은 쇼핑기회를 제공한다.

여주 프리미엄아웃렛은 해외 명품과 해외 선진 패션 브랜드 구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몽클레르·지방시 이르·샌프란시스코 마켓·KOON 등이 국내 최초로 단독 입점된다. 멀버리·발리·포르넬리·아니·자디엔블레르·자클드레이뷔스 등 고품격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가족단위 고객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쉬어가며 쇼핑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했다. 특히 아이들이 숲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꾸며진 270평 규모의 숲속의 놀이터를 비롯해 회전목마·바운스스킨·미니트레인 등 놀이기구와 키즈카페까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확장된 공간엔 오픈 초기부터 지역 농·특산물 판매처로 운영해온 그린마켓 외에도 약 500여 평(1700㎡)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인 여주 파머스 마켓을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대표는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지난 8년 간 1800여개 이상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3300만여 명 이상의 국 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고객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 연간 14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최정상급 쇼핑 명소로서 여주 이천 지역의 쇼핑·관광 클러스터 구축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작게 더 작게… 미니에 빠진 대형마트

소용량 간편식·신선식품 2년새 큰 성장

대용량 묶음 판매의 일류인 대형마트가 '미니 상품' 경쟁으로 저성장이다. 장기불황과 김재류무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편의성·다양한 취향을 타깃으로 한 소용량 간편식 매출은 나홀로 고공 성장하고 있는 때문이다.

2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간편조리식품 카테고리 내에서 1~2인 가구가 한 끼를 해결하기에 적당한 '소용량' 간편식은 2012년 392종에서 2013년 484종, 2014년 602종으로 2년 동안 53.6%나 증가했다. 매출도 2012년 12.5%, 2013년 15.8%, 2014년 20.2%를 기록했다.

신선식품 카테고리 내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양만 사용하기 좋은 소포장 식품 매출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31종, 37종 수준에서 2014년 들어 218종으로 크게 늘면서 2년 동안 571.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매출비중도 2012년 0.4%, 2013년 0.5%에서 2014년 5.5%로 뛰었다.

싱글즈프라이드 /홈플러스 제공

인터넷쇼핑몰 내 '싱글족들이 많이 구매하는 간편식·소형가전·소포장 신선식품 등을 모아 놓은 '싱글하우스' 코너의 지난해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0.9% 늘었다.

조한규 홈플러스 식품부문장은 "1~2인 가구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식품 개발은 앞으로 고객이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리테일테인먼트 콘셉트의 점포 리모델링, 멀티채널 비즈니스 강화,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 등과 함께 대형마트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이마트, 올해 첫 '골프대전'

이마트(대표 이갑수)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17일간 '연기 골프 클럽 용품을 할인하는 올해 첫 대형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여성골퍼를 겨냥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2015년 젝시오 프라임 로얄에디션 신형클럽의 드라이버는 150만원, 아이언클럽은 약 40% 저렴한 89만원, 185만원에 각각 판매한다.

롯데마트, 출산 캠페인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가 '출산서약서'를 작성하면 '다둥이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둥이클럽 서비스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3년 2월 기존 유통업계의 키즈 클럽 서비스와는 달리 가입 대상을 13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로 한정해 출산·육아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출시 2년간 32만3000가구 이상이 가입했다. 회원의 경우 분유·기저귀 등 다둥이클럽 전용 육아 상품은 최대 30% 가량 상시 할인 받는다.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2/10 2PM. LAST TICKET OPEN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 - 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illegible]선 김여진

스타벅스, 가격만족도 '꼴찌'

한국소비자원 커피전문점 만족도 조사… 1위 '이디야'

커피전문점 만족도 조사에서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 소비자 999명에게 연매출 기준 점유율이 높은 7개 커피전문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 평균이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8개 부문별 평균 만족도는 가격 적정성이 2.81점으로 최저, 매장 접근성이 3.81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업체별 종합 만족도는 이디야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타벅스·할리스커피(각 3.74점), 카페베네(3.7점), 엔제리너스(3.69점), 커피빈·탐앤탐스(각 3.64점) 순이었다.

가격 적정성은 이디야, 맛은 스타벅스가 각각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높았다. 맛 부문에서 업체별 점수 차는 최대 0.3점(스타벅스 3.68·이디야 3.38)이었지만, 가격 적정성 점수 차는 최대 1.14점(이디야 3.54-스타벅스 2.4)으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컸다.

스타벅스는 맛, 매장 접근성, 직원 서비스, 서비스 감성체험 등 4개 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가격 만족도는 조사 대상 업체 중 꼴찌였다.

가격 적정성은 이디야, 매장 이용 편리성은 할리스커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엔제리너스와 카페베네는 각각 부가혜택, 메뉴 다양성 평가에서 1등에 올랐다.

올해 1월 1일 기준 엔제리너스를 제외한 6개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가격은 작년 1월 1일보다 100~400원 올랐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아메리카노 6.7%, 카페라테 6.6%였다.

/김수정기자 ksj0215@

형지, 이에프씨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패션그룹 형지(대표 최병오)가 토종 제화 브랜드 에스콰이아로 유명한 이에프씨(대표 정휘우·옛 에스콰이아)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22일 형지는 법원으로부터 이에프씨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강제화와 함께 국내 제화업계를 이끌었던 이에프씨는 지난해 8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에스콰이아, 영에이지 등 제화 브랜드를 비롯해 소노비, 에스콰이아 컬렉션 등 핸드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제화 브랜드가 없던 형지는 이에프씨 인수를 통해 종합패션회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새해 다짐' 아이템 음력 설에 더 많이 팔려

최근 금연·다이어트 용품이 양력 설(1월1일)보다 음력 설에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K몰은 최근 2년간 양력 설과 음력 설 2주전의 금연 및 다이어트 관련 용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금연용품·다이어트식품·다이어트용품·스포츠패션 등 모든 상품군의 매출이 양력 설보다 음력 설에 평균 73% 더 높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음력 설의 금연용품 매출은 양력 설 보다 51% 신장했고, 다이어트 운동기구 상품군은 48%, 스포츠패션 상품군은 38% 더 팔렸다. 특히 레몬 디톡스·다이어트 요거트·닭가슴살 등 다이어트 식품군의 경우 양력 설 보다 무려 260% 신장했다.

해태제과 '허니콘팝'

해태제과(대표 신정훈)가 허니버터칩과 허니통통 등의 허니시리즈에 이은 '허니콘팝'(사진)을 출시했다.

허니콘팝은 고소한 팝콘의 향과 식감을 그대로 살린 바삭한 콘스낵으로 달콤한 국내산 아카시아꿀과 고소하고 담백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풍미와 영양을 더했다.

옥수수를 기름에 튀기는 대신 고온의 열과 압력으로 재료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퍼핑(Puffing)기술을 활용해 첫 맛은 바삭하지만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가격은 65g 1500원이다.

VDL 제주 연동점(좌), 에스쁘아 이대점(우) /각 사 제공

색조 강화… 色에 빠진 화장품

에스쁘아 독립 체제 본격·VDL 관광 상권 공략

화장품 업계가 색조 화장품 강화에 나섰다. 맞수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색조 전문 브랜드의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신규 브랜드도 도전장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의 에스쁘아는 지난달 독립 법인 설립 후 첫 매장인 이대점을 최근 오픈했다. 기존 이대점을 없애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대 정문 앞 중심 거리로 옮겨 새롭게 열었다. 에스쁘아 이대점은 매장 1층에 체험이 가능한 메이크업 피팅 바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에스쁘아는 지난해 하반기 강남점을 시작으로 명동, 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의 매장에 메이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브랜드 성격을 강화하는 등 리뉴얼을 진행해왔다. 전국 25개 매장 중 12개 점도의 매장이 리뉴얼됐으며 향후 신규 매장에도 이 같은 체험 공간을 대련해 오픈할 계획이다.

에스쁘아는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에뛰드에서 사업부가 분할돼 올해 1월 1일부로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에뛰드에 합병된 지 9년 만이다. 에스쁘아는 지난해 기준 약 250억원 매출 규모로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관광 상권인 제주도에 VDL 매장을 잇따라 열며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면세점 매장 3곳과 제주 연동에 연 로드 매장 1곳을 운영 중이다. 특히 로드매장이 들어선 연동 상권은 매출의 약 95%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오고 있다. VDL은 국내 약 40개 매장을 전개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현재 20%대까지 성장한 색조 매출 비중을 향후 글로벌 수준인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매장을 열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토털 브랜드인 문샷은 올해 해외 진출을 타진한다. 올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있는 세포라 입점을 시작으로 전 아시아 국가에 순차적으로 매장을 열 계획이다. 국내에도 3개 매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문샷은 YG엔터테인먼트가 론칭한 브랜드로 소속 연예인의 후광 효과로 해외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 업계는 포화된 스킨케어 시장에 비해 색조는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메이크업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도 생겨나고 있다"며 "포화인 기초 제품 시장보다 색조가 전망이 좋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유커, 한국 마트서 과자·김·헤어용품 '싹쓸이'

'마켓오 브라우니' 1위… 중국인 총 매출 작년보다 31%↑

중국 최대 명절 춘제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형마트에서는 주로 한국 과자와 김, 헤어 미용용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춘제 연휴 직전 12일(5~16일)동안 중국인이 많이 찾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유커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춘제 기준)보다 31%나 늘었다.

이들 유커가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산 품목(매출 기준)은 마켓오 브라우니세트(32개들이 과자)로, 이 제품은 지난해 춘제 전후나 국경절 연휴(10월 1~9일) 당시에도 유커 매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과자류에서는 ▲오리온 찰booking이 (24개들이) 5위 ▲마켓오 브라우니 블론디(28개들이) 6위 ▲마켓오 리얼브라우니(7개들이) 7위 ▲오리온 크리스피가 10위로, 오리온의 다섯 개 과자 제품이 10위 안에 들었다.

설 연휴 붐비는 명동 거리 연합뉴스

'한국산 김'도 한국 관광에서 유커들의 필수 쇼핑 아이템이었다. 중국인은 청산에 아몬드 김 스낵을 두 번째로 많이 구입했고 웰빙 들자반김(9위)과 CJ햇해선 식탁김(14위), 종가집 석쇠구이 도시락김(16위)의 인기도 뜨거웠다.

샴푸·생리대 등 생활 미용용품, 특히 한방 제품류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중국인들의 관심이 갑자기 크게 높았다. '바디피트 귀애랑 날개'가 중국인 매출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미장센 세럼(4위), 려 엔 윤고 더퍼스트 샴푸(8위), 려 자양윤모(18위), 려 진생보 안티 에이징(20위) 등이 새로 20위권에 진입하거나 순위가 뛰었다.

이 같은 중국인 수요에 힘입어 올해 들어 16일까지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5.3%(작년동기 3.8%), 13.5%(11.8%)까지 커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인 고객들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국산 과자와 김 등을 직접 먹거나 선물하기 위해 많이 사간다"며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과자 등 식품 위주로만 쇼핑했다면, 최근 점차 생활 미용용품으로 선호 품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기자

환절기 내 아이 건강관리

한국존슨앤드존슨 '아이 건강관리 상식' 소개

봄이 다가오면서 환절기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환절기에 감기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어른보다 많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이 환절기 소아 건강을 위한 '아이 건강관리 상식'을 소개한다.

먼저 아이들은 체온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한 겹씩 더 입는 것으로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 감기 예방에 힘쓰고 아이에게 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수도 있어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과 얼굴을 씻어야 한다. 아울러 목욕을 자주 시키면 아이의 체온이 쉽게 소실되고 체력이 낭비돼 환절기에는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가 계속 더워하거나 심하게 보챈다면 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흔히 항문에서는 38도, 구강에서는 37.5도, 겨드랑이에서는 37.2도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열이 날 때는 아이를 안거나 젖은 수건을 덮어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계다가 열이 지속된다면 어린이용 해열제를 먹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단 과량 복용의 위험이 있어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곧바로 다른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정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해열제는 연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확인하고 되도록 한 종류를 권장량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어린이 해열진통제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는데 어린이 타이레놀 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이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신개념 에너지음료 '핫식스샷' 출시

롯데칠성음료 "핫식스와 성분·맛 차별화"

롯데칠성음료가 졸음운전을 위한 신개념 에너지음료 '핫식스샷'(사진)을 출시했다.

핫식스샷은 장시간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된 운전자를 포함해 공부나 야근으로 지친 대학생,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음료. 국내 에너지음료 1위 '핫식스'의 브랜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분·맛·용량·패키지를 차별화한 제품이다.

기존 핫식스에 포함된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BCAA 아미노산, 홍삼, 가시오가피, 비타민B군 등 6가지 원재료 중 BCAA 아미노산과 비타민B군을 강화하고 비타민C 500㎎도 새롭게 추가했다. 은은한 과일향에 탄산을 넣지 않아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용량을 줄이고 고급스러운 유리병 패키지를 적용해 프리미엄 에너지음료 이미지를 더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핫식스샷은 기존 핫식스에 비해 용량은 줄이고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게 기능 성분을 강화하여 피로한 몸과 졸음운전방지에 제격인 음료이며 박카스, 비타500과 함께 드링크 시장을 주도할 제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경기인력개발원 '맞춤 인재' 키운다

26일까지 올해 취업교육생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원장 이수종)이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높은 취업 성과를 달성해 도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40% 미만으로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9%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개발원 교육생 436명 중 388명(약 89%)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개발원이 '현장 기술로 현장 작업을 이끈다'는 슬로건으로 우수 기업체와의 다양한 업무 협약(MOU)을 통해 기업 맞춤·현장형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개발원은 올해도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취업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교육생 지원은 개발원 홈페이지(http://kg.korchamhrd.net)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컴퓨터응용설계제작과와 자동화시스템과, 전기제어과 등 총 6개 학과 18개 직종 600명이며 교육 수료자는 1년간 정규·기능교육을 받게 된다. 문의 031)940-6330~4번.

/황재용기자

'JAL 스칼러십 프로그램' 열려

일본항공 다음달 10일까지 한국 대표 선발

일본항공이 공익재단법인인 JAL재단과 함께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46회 2015 JAL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올해는 '주식하자! 아시아 속의 일본-스칼라가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의 화학반응'을 주제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총 15개국에서 25명의 학생이 초청된다.

또 일본항공 한국지점은 일본에서의 연수과정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등을 갖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에세이 테스트와 면접 등을 통해 한국 대표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일본항공 홈페이지(www.kr.jal.com/krl/ko/event/2015scholarship/index.html)에서 접수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명절증후군 극복 힐링 이벤트

모짜렐라돈가스·통등심돈가스 4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절증후군을 겪는 고객들을 위로하는 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로빈훗' 티켓, 리시리 샴푸&헤어크림,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계육밥상'과 '나는 세계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 길벗의 추천도서를 준다.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중인 '로빈훗'은 숲의 도적떼를 규합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로빈훗과 그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왕이 되려는 필립 왕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리시리 샴푸에는 미네랄 아미노산 추코이단 영양성분이 들어간 천연다시마 엑기스가 100% 배합됐다. 50여 종의 천연성분이 포함된 헤어크림은 트리트먼트 오일 에센스 크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영양간식 모짜렐라돈가스(720g·3팩)는 4만2000원에, 통등심돈가스(720g·3팩)는 3만57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김수정기자 kssh815@

소형 SUV 시장 대격전 속으로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시동차) 티볼리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올 뉴 투싼이 가세하면서 쉐보레의 트랙스 QM3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일 예정인 올 뉴 투싼(프로젝트명 TL)의 내외장 이미지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외장 이미지는 유럽 사양으로 내달 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할 모델로 국내에는 3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올 뉴 투싼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3세대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적용해 SUV만의 대담한 이미지를 구현하면서도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 헥사고날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대담한 전면부 이미지를 구현했다. LED DRL(주간전조등)를 포함한 프론트 범퍼의 날개 형상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실내 디자인은 최상의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운전자에게 효율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선사한다. 신형 투싼엔 가솔린 디젤 2L 모델 외에 1.7L 디젤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적용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출시한 쌍용자 SUV 티볼리 는 이날 현재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계약 대수 9500대를 넘었다. 올해 판매 목표치(3만8500대)의 4분의 1을 한 달 만에 채울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티볼리는 1.6L 가솔린엔진을 단 소형 SUV다. 티볼리는 디젤 모델도 오는 7월께 내놓을 계획이어서 비슷한 급인 투싼과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티볼리는 남다른 감각과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6컬러 클러스터(계기판)를 적용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미터 클러스터를 ▲레드 ▲블루 ▲스카이블루 ▲옐로 ▲화이트 그리고 ▲블랙의 6가지 컬러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티볼리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1.4%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으며 이 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 역시 동급 최다인 40%에 이른다.

쌍용자 관계자는 "티볼리는 누적 계약 1만대를 바라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기존 SUV는 투박한 이미지였다면 티볼리는 작지만 예쁜 디자인과 낮은 가격 대비 뛰어난 활용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쉐보레의 소형 SUV 차량 트랙스도 '안전성 최고 등급'을 받아 안전성을 중시하는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트랙스는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신차안전도 평가에서 대상 차종 11종 가운데 가장 높은 총점 93.9점을 획득하며 올해의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유럽에서 진행된 유로NCAP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GM이 개발과 생산을 주도한 쉐보레 트랙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안전도 평가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트랙스 가솔린 모델만 갖고 1만대 넘게 팔았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28.6%. 디젤 모델까지 가세할 경우 2만대 이상 판매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자의 소형 SUV QM3는 지난해 1만8191대 팔리면 르노삼성의 실적을 견인했다. QM3를 등에 업고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30% 급성장 할 수 있었다.

QM3는 7분만에 1000대 완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형SUV 시장의 열기를 달군 원조 SUV이다.

QM3 1.5dCi 엔진은 르노의에도 닛산과 메르세데스 벤츠에 두루 공급되는 엔진으로 작고 가벼우면서 힘 좋은 엔진으로 평가 받는다. 최대 토크는 22.4kg.m으로 가솔린 준중형차와 맞먹는다. 1.5 dCi와 맞물린 독일제 게트락 DCT도 높은 연비를 가능하게 하는 환상의 조합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동급 최강 18.5km/ℓ의 연비를 자랑하는 QM3는 국내외 SUV를 모두를 통틀어 가장 높은 효율성을 지녔다"며 "가격과 성능, 연비 등 장점을 고르게 갖춘 것이 인기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현준기자 fun@metroseoul.co.kr

현대 올 뉴 투싼

현대차, 수입차와 트럭·버스 상용차 '한판승부'

승용차에 이어 트럭·버스 등 상용자 시장에서도 현대자동차와 수입차업계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내외 업체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로6 환경 기준에 맞춘 신차들을 앞다퉈 출시하며 상용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는 유로6 배출가스 규제에 맞춰 친환경 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니버스 등 새로운 엔진을 적용한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상반기 중 모든 상용차 라인업을 유로6 기준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신규 엔진이 적용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기존 유로5적용 엔진 대비 달라진 차량 관리 방법 등 필수 정보들 제공하고 각 지역별 전담 서비스 인력을 편성해 조기 품질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로6 관련 각 부문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로6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고난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품질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니버스 개발에도 나섰다. 올해 4월께 현대차가 출시할 미니버스(수출명 H350)는 승합차인 스타렉스(12인승) 보다 크고 25인승 버스인 카운티보다는 작은 15인승 미니버스다. 이 차는 소규모 단체의 수송과 1인 의전용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전북 전주 상용차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차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쟁차종은 포드 트랜짓이나 벤츠 스프린터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독일 하노버 모터쇼에 공개될 당시 전장 길이가 6195mm로 스타렉스 5125mm보다 1m 이상 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내장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용해 프리미엄 의전차로서의 품격을 갖출 계획이다.

수입차들도 상용차 시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대표 모델인 FH, FM, FMX 모델을 비롯해 전 라인업에 걸쳐 유로6 환경 기준을 적용한 신제품을 3월 5일 출시한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유로6 모델은 지난해 유럽에서 출시된 차종. 볼보트럭이 지난 1월 26일부터 시전계약에 들어간 지 20여 일만에 계약물량이 32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이 업체의 연간 판매량이 1600여 대인 점을 고려하면 반응이 폭발적이다.

유로6 모델에는 새로운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인 일체형 무시동 에어컨, 순정 내비게이션, 무선 리모컨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유현준기자

"환갑 지나도 앨범 내야죠 세이 호~"

데뷔 19년차 래퍼 허인창

새 음반 '이 계절의 맛' 수록곡 통해 제자 응원 '여고생 래퍼' 육지담 스승 등 수많은 수식어 "무분별한 '욕' 노래가사는 진정성 없어보여"

래퍼 허인창(36)의 이름 앞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익스틴 멤버, 힙합 1세대, 여고생 래퍼 육지담의 스승 등. 그는 "난 그냥 허인창이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7년 익스틴으로 힙합신에 첫발을 내디딘 뒤로 그는 쉼 없이 달려왔다. 국내 힙합신의 역사를 관통해온 그에게 수많은 수식어는 어쩌면 훈장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 힙한 1세대

허인창은 최근 새 앨범 '이 계절의 맛'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현역 래퍼인 그에게 '스승'이라는 다소 낯선 호칭이 붙었다.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3'에 참가한 여고생 래퍼 육지담의 랩 선생님으로 등장하면서부터다.

"대견하고 뿌듯해요. 아빠 같은 마음이에요. 지담이의 스승이란 표현은 괜찮지만 힙합 1세대라는 말은 싫어요. 그런 이미지는 별로예요. 자신 음악을 해도 '예스럽게' 볼까 걱정되거든요."

그는 제자에 앞서 '쇼미더머니2'에 출연해 2차 예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죽을 것 같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음악적인 면에선 큰 도움이 됐죠.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지나고 나니 살짝 탈락한 게 잘 된 일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요."

탈락 이후 그가 발표한 노래 '1세대' 가사엔 '내가 1세대 였었어 를 모딜 달고 살았어 안에, 는 비겁한 꼼꺼'라는 부분이 있다. 힙합이 낯선 장르였던 시기에 음악을 시작했던 자신의 노력이 부족함을 반성한 것이다.

"당시엔 제대로 된 클럽이나 힙합만을 위한 무대가 턱 없이 부족했어요. 행사장을 가면 트로트·댄스·발라드 가수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세이 호~'를 외치고 랩을 했죠. 그래도 현장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어요. 래퍼들 각자 개성도 뚜렷했고 유행을 따라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이렇다 할 수익이 없으니 관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금만큼 무대가 있었어도 제 수익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말대로 국내 힙합신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힙합 앨범이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일도 흔해졌다. 하지만 그는 힙합이 이제 주류 음악이 됐다는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힙합의 영향력이 커졌으면 대부분이 그걸 느껴야 하는데 극소수의 래퍼를 제외하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힙합이 아니라 '쇼미더머니'가 유행된 것 같아요. 스윙스나 도끼(DOK2)같은 친구들을 보면 언더에서 활동해도 성과를 거두죠. 사막 한 가운데 씨를 뿌려 나무를 키운 것과 같아요. 그 친구들은 자기 자랑해도 돼요."

◆ 음악은 죽는 날까지

그는 제자가 요즘들어 가사에 자꾸 욕을 쓰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오랫동안 음악을 해 온 만큼 그에겐 확고한 철학이 있다.

"DJ DOC 형들이 2000년에 발표한 앨범에서 욕을 했는데 큰 화제가 됐어요. 기득권을 향해 돌을 던진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런 욕은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후배들이 무분별하게 이슈를 만들기 위해 가사에 욕을 썼는데 그런 건 자양해야 해요."

그는 용기가 부족해 가사에 욕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가사가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회운동가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진짜로 목숨을 걸고 디스(DISS)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요즘 노래 가사 속 욕은 소신도 용기도 명분도 없어요. 그저 유행·인기·돈을 따라가는 거죠. 욕에 진정성이 없어요. 제요? 전 용기가 없어서 욕 안 해요(웃음)."

인터뷰 내내 힙합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60세가 되도 앨범 낼 거예요. 미국도 힙합의 역사가 아주 길진 않아요. 런 디엠씨(RUN DMC)가 이제 예순이니까요. 제 영웅인 레드맨, 비스티보이즈, 스눕 독 모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저도 제 입지를 굳히서 후배들과 선인들과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요. 문제는 개네가 절 안 불러주네요(웃음)."

/이지은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사진/일관뉴스 제공 디자인/박문지

star bag

'젠틀맨' 뮤비 조회 8억뷰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8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13일 유튜브에 게시된 이 뮤직비디오는 22일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8억2만9천여뷰를 기록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강남스타일'의 후속작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용감한 가족' 라오스편 합류

배우 **박주미**가 KBS2 '용감한 가족' 라오스편에 합류한다. '용감한 가족'은 이문식·심혜진·박명수 등 연예인 6명이 그 나라 이의 캄보디아 최대 빈민촌 톤레사프 수상마을에서 며칠 간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박주미는 캄보디아에 이어 '용감한 가족'이 찾게 되는 라오스 편에 합류해 기존 멤버들과 한솥밥을 먹게 된다.

日 오리콘 앨범 차트 2위

걸그룹 **에이핑크**의 일본 두 번째 싱글 '미스터 츄'가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에이핑크가 지난 18일 발표한 '미스터 츄'는 앨범 차트 3위로 첫 진입했으며 이튿날 한 계단 올라 일간 차트 2위를 기록했다. 에이핑크는 싱글 앨범 발매를 기념해 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도쿄 등에서 앨범 발매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여편 러브콜 '행복한 고민'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손호준**이 차기작 결정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손호준이 드라마 3편, 영화 5편, 예능 2편 등 10여 편의 작품의 러브콜 제안을 받았다"며 "3월 중 차기작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호준은 현재 성동일·김유정과 함께 영화 '조선'을 촬영 중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현실의 서늘함

사회 단면 담은 범죄영화…제이크 질렌할 열연 '인상적'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en@metroseoul.co.kr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 크롤러'의 주인공 루이스 블룸(제이크 질렌할)을 보면 '데어 윌 비 블러드'의 주인공 다니엘 플레인뷰가 떠오른다. 화려한 언변으로 뭇사람들을 사로잡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언변 뒤에 돈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무엇보다도 두 인물 모두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루이스와 다니엘은 지금 이 사회의 단면이 반영된 인물들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이트 크롤러'에서 보여주는 루이스의 행동은 마치 소시오패스마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것도 이룬 것도 하나 없는 볼 품 일 없는 남자인 루이스 블룸은 "무엇이든 빨리 배운다"는 넘치는 자신감과 이른 배짱으로 딱 언변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간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나 윤리가 아니다. 오직 돈만이 그의 행동을 이끈다.

루이스가 마침내 찾아낸 돈이 나올 구석은 바로 사건사고 현장의 특종영상이다. 그것도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필요하다. 지역방송국의 보도국장 니나(르네 루소)가 루이스를 더욱 부추긴다. 2년 계약직인 니나는 오직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언론 윤리를 저버리고 루이스가 찍어온 자극적인 영상을 여과없이 내보낸다. 돈과 성공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니나와 루이스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콤비다.

영화는 루이스가 돈이 되는 특종 영상을 얻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절정으로 치닫는다. 윤리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오직 돈만 추구하는 루이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다.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루이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인간이다. 루이스가 니나에게,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조수 릭(리즈 아메드)에게 마치 회사의 고용주처럼 말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다.

'나이트 크롤러'가 놀라운 것은 단순한 범죄 영화를 뛰어넘어 자본이 지배하는 현실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다.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결말 또한 영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나이가 언론의 치부까지도 날카롭게 파헤친다. 무심한 표정 뒤에 광기를 감춰둔 제이크 질렌할의 연기는 영화를 본 뒤에도 강한 서늘함으로 남는다. 청소년 관람불가. 26일 개봉.

설 연휴 '조선명탐정' 웃었다

'킹스맨' 200만 돌파 · '국제시장' 뒷심 발휘

예상이 현실이 됐다.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이 설 연휴 극장가 흥행 대결의 승자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조선명탐정2'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모은 총 관객 수는 165만2213명이다. 22일에는 누적관객수 302만8432명을 넘어섰다.

'조선명탐정2'의 흥행은 큰 경쟁작이 없는 가운데에서 명절에 어울리는 사극과 코미디 장르로 전 세대 관객을 사로잡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4년 전 설 연휴에 개봉한 전작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의 흥행 성적(478만)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킹스맨'은 107만2532명의 관객을 모으며 2위를 차지했다. 다소 폭력적이고 잔인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의 전복을 다룬 유쾌한 이야기로 젊은 세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누적 관객수는 200만을 돌파했다.

'국제시장'은 56만5030명의 관객을 모으며 뒷심을 발휘해 누적 관객수 1396만을 넘어섰다. '아바타'(1362만)를 뛰어넘어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선 '국제시장'은 1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개미'도 꾸준히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했다. '세시봉'은 설 연휴 기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박스오피스 5위에 머물렀다. 누적 관객수는 152만을 넘어섰다. /장병호 기자

악기 잡는 배우 '색다른 감동'

액터 뮤지션 뮤지컬 '원스' '오디션' 관객 몰입도↑

뮤지컬 '원스'와 '오디션'은 전형적인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다. 배우가 직접 악기를 연주해 색다른 감동을 전한다.

음악 영화 '원스'(2006)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원스'는 아일랜드 거리 음악사(윤도현·이창희)와 체코 이민자(전미도·박지연)의 사랑 이야기다. 전 출연진은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을 들고 무대에 오른다. 무대 배경은 여러 개의 거울로 둘러싸인 펍(Pub) 뿐이다. 좁은 공간에선 배우들의 발소리마저 음악이 되고 관객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원스' 음악에 빠져든다. 특히 윤도현표 거리 음악사는 특유의 록 보컬로 극에 역동성을 더한다. 정식 공연 시작 전부터 출연진은 무대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관객의 흥을 돋는다. 관객이 무대에 올라 연수를 즐기는 진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공연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3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오디션'은 콘서트형 뮤지컬이다.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뭉친 록밴드 복스팝의 이야기다. 그룹 2AM 이창민, 뮤지컬배우 김신오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 밴드 복스팝의 보컬 병태 역으로 더블 캐스팅됐다. 주로 발라드를 불렀던 이창민의 록보컬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커튼콜은 '오디션'의 대표 넘버 '내일은 없어요'로 대신한다. 관객은 야광봉을 들고 합창하며 '오디션' 관객이 아닌 복스팝 콘서트에 온 듯 몰입한다. '오디션'은 2007년 초연 후 성공한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란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까지 1700회 공연을 했다. 새롭게 재구성된 2015년판 '오디션'은 내달 15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공연된다. /정효진 기자

원스 / 오디션

온라인 핫 이슈

김현중 전 여친과 재결합?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이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성 매거진 우먼센스는 22일 "김현중이 2세 연상인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며 "임신한 상대는 김현중을 폭행치상과 상해혐의로 고소했던 일반인 여자친구 최모씨"라고 보도했다.

또한 우먼센스는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를 잘 아는 측근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이 쉽(?)만에 재결합했다. 현재 최 씨는 임신 10주로 곧 4개월에 접어든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폭사 고소 이후 김현중이 최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화해했고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며 "김현중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고민이다. 양가가 현재 결혼과 아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한혜진·기성용 부모 된다

배우 한혜진(사진 오른쪽)과 축구 선수 기성용(스완지시티·왼쪽)이 예비 부모가 됐다.

한혜진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2일 "한혜진이 임신했다. 현재 임신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코리안 골퍼' 또 우승 행진

교포 리디아 고, LPGA 호주여자오픈 정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코리안 골퍼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뉴질랜드 교포이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18·사진)가 22일 끝난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2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이날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파73·675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2언더파 71타의 성적을 냈다.

이로써 최종합계 9언더파 283타를 기록하며 단독 2위 양희영(26)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8만 달러(약 2억원)다.

시즌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리디아 고는 지난해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3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다시 전했다.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2년과 2013년에 캐나다 오픈을 2년 연속 제패했고 LPGA 투어 신인이던 지난 시즌에 3승을 거둬 이번이 투어 통산 6승째다.

앞서 열린 두 차례 LPGA 투어 대회에서 최나연(28·SK텔레콤)과 김세영(22·미래에셋)이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교포 선수인 리디아 고가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계) 선수들의 강세가 계속됐다.

/장신문기자 mikum@

'젖병 세리머니' 21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스완지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전반 30분 골을 터뜨린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 뉴시스

'기'찬 시즌 5호골

기성용 감각적 왼발슛으로 골문… 팀, 맨유에 2-1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26·스완지시티)의 시즌 5호골이 터졌다.

기성용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30분 득점에 성공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28분 맨유의 안데르 에레라에게 먼저 실점했다. 그러나 전반 30분 왼쪽 측면에서 존조 셸비가 올려준 크로스를 기성용이 골 지역 정면에서 왼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놓는 재치있는 슛으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기성용은 지난 1월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넣은 뒤 2주일 만에 다시 득점을 올렸다. 한국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 타이기록이다. 앞서 박지성이 2006~2007시즌과 2010~2011시즌 두 차례 정규리그 경기에서 5골을 넣은 바 있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28분 바페팀비 고미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지난해 8월 시즌 개막전에서도 맨유를 2-1로 물리친 스완지시티는 이번 시즌 맨유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뒀다.

기성용은 후반 3분에도 맨유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오른발로 공을 밀어 넣으려 했으나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에 가로막혔다.

기성용은 이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스완지시티는 시즌 10승 고지에 오르며 승점 37로 9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맨유는 13승8무5패(승점 47)를 기록해 이날 크리스털 팰리스를 2-1로 꺾은 아스널(승점 48)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섰다.

한편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윤석영(25)은 헐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으나 팀은 1-2로 패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27)은 아스널과의 홈 경기 출전 선수 명단에 들지 못했다.

리그 선두인 첼시는 번리와 1-1로 비겼다. 승점 60점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체스터시티(승점 55)와 격차를 벌렸다.

/황성훈기자 sabaoki@metroseoul.co.kr

바르셀로나 12연승 실패

메시 활약에도 말라가에 0-1 패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12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FC바르셀로나는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4라운드 말라가와의 홈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지난달 4일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0-1로 패한 이후 각종 경기에서 11연승을 내달렸던 FC바르셀로나는 시즌 4패째다. 18승2무4패(승점 56)를 기록해 한 경기를 덜 치른 1위 레알 마드리드(승점 57)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반 7분 말라가의 후안미에게 선제 득점을 허용한 FC바르셀로나는 공 점유율 73%-2[illegible]의 우세한 경기 내용을 보이면서도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리오넬 메시(사진)가 슈팅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골문 바깥을 향했다.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 등도 공격에 가담했지만 골과 연결하지 못했다.

한편 말라가는 11승5무8패를 기록하며 승점 38로 7위를 유지했다.

/장성환기자

김광현 147km '씽씽투'

첫 실전피칭 2이닝 3K 1실점

SK 와이번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26·사진)이 스프링캠프 첫 실전 피칭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김광현은 22일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 이시카와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 등판,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솎아내고 피안타 3개로 1실점을 기록했다.

그동안 스프링캠프에서 새로운 체인지업을 연마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수로 거듭날 준비를 해왔던 김광현은 42개의 공을 던지며 직구와 커브, 체인지업 등 자신이 가진 다양한 구종을 전체적으로 시험했다. 사4구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안정감도 인상적이었다.

직구 구속은 147㎞를 찍었다.

/김민준기자

"러시아 월드컵 목표는 16강"

슈틸리케 감독 "창의력 키울 훈련 더 필요해"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강 진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슈틸리케(사진) 감독은 21일(한국시간) 스페인 신문 A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근황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 목표를 밝혔다.

그는 "아시아 국가에서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매우 만족스럽다"며 "최근 끝난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69위에서 54위로 올랐다"고 말했다.

또한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 축구협회와 계약 기간은 2018년까지"라며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은 조직력이 잘 갖춰진 팀"이라며 "협회의 지원 역시 훌륭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현역 시절을 보낸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는 독일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4명, 잉글랜드 리그 소속이 2명 있으며 나머지는 아시아권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한국 국내 리그는 강한 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 정도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대표팀의 경기력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국에서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공권이 취약한 대신 스피드는 뛰어나다"며 "아시안컵에서는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선수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 골 결정력 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달 말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해 이달 초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다. 다음달 7일 국내 프로축구 개막 이전에 돌아올 예정이다.

/장성훈기자

현대차에 실망하는 이유 (2)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정말이지 자고나면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인 모양입니다. 진원지는 거의 늘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풍미했던 팍스아메리카가 이제야 말로 만개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경제권이 헤매는데 미국만 금리인상을 고민할 정도로 호경기입니다.

어느새 이가 될 뻔한 미국을 다시 한번 혁신의 본가로 일으켜 세운 주역 중 1등 공신은 역시 애플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한국에 상륙한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아직도 귀에 맴도는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소니 닌텐도 등등. 본의 아니게 애플의 공략 대상이 됐던 브랜드들은 이제 찾기도 힘든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때 그 선수들입니다.

이제 태풍은 자동차업계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의 결합은 이미 대중화 단계입니다.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의 신조어도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위성 등과 결합된 텔레매틱스 차량이 올해 약 1억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규모도 2112억 달러(약 233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서도 애플은 절대강자입니다. 애플의 '카플레이'는 차와 대화하는 세대를 열었다는 칭송과 함께 구글의 '안드로이드오토'와 더불어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을 이미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애플발 자동차 혁명은 2단계로 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 옆 비밀 연구동에 200여명의 인재들을 영입해 전기차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개발 주역이자 포드차 출신 엔지니어인 스티브 자데스키가 이를 지휘하고 있다네요. 늦어도 5년 안에 애플카 또는 아이카를 시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글도 여차하면 스마트카 메이커로 나설 태세입니다.

현대차도 안드로이드오토의 원조인 블루링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장착하고 시장 테스트를 받은 '아슬란'은 넉달동안 3621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이 신경을 아예 끄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기술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영 못 알아듣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도 테슬라가 순식간에 전기차 절대강자로 떠오른 것도 그 비결은 모두 상생 생태계 구축에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으로 재미를 본 삼성전자가 '타이젠' 등 독자 시스템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의 교훈이 현대차에게도 먹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라는 첨게산 벽돌가는 높이의 바벨탑을 쌓으려면 총 20조원 정도를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도 바거운데 생태계는 무슨 얼어 죽을 생태계냐는 정몽구 회장의 핀잔이 귀를 때리는 듯합니다.

/편집국장

날씨 2/23 月

일출 07:13 일몰 18:16

자료제공 Kweather

서울 -3/7, 강릉 3/9, 울릉도 3/5, 청주 -3/7, 대전 -2/8, 안동, 대구 0/9, 울산, 전주 -1/7, 부산, 광주 1/9, 제주 3/9

명절 뒤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요통과 관절통 등입니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감기 가능 지수
- 천식 폐질환 가능지수
- 뇌졸중 가능지수
- 피부질환 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의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제대 후 방황하는 아들 진로가 걱정입니다
20대 창업 금물 … 장사의 기술 먼저 배워야

서익분 남자 00년 8월 10일 음력 오후 4시

Q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아들 92년 음력 8월 10일 오후 4시 생의 엄마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맞지 않아 자퇴하였습니다. 바로 군대를 가서 이번 1월에 제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떤 길로 가야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는 뜻이 없는 것 같고, 옷 장사나 술장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할지 걱정되어 글을 올립니다.

A 사주 운(運)에서 상관(傷官)의 기운이 오면 인수(印綬: 학문)를 극하여 공부의 끈을 놓든지 직장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직업을 바꾸는 데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할 것이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인생의 목표를 한두 가지는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만이라도 설정한다면 주변의 걱정은 다소 덜어질 것입니다. 사주 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지만 운세가 설정되지 않으면 상황에 맞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운(運)의 차이라고 하며 종교에서는 각자의 신들의 발현이라고 표현될 것입니다. 운의 차이가 일시적인 유행이나 인기에 쏠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명한 태도가 무엇이 적절한지는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현대 산업의 급속한 하이테크 화에 따라 직업도 급속히 변화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소질, 취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큰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 해도 일에 대한 보람으로 개인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관의 기운이 작용하여 자영업, 장사 등을 생각하는 시기이니 공부보다는 사회 쪽에 뜻을 두게 함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열정과 자신감으로 투자를 한다면 28세까지는 거듭되는 손실을 불러오는데 그 시기까지는 사주에서 불안정한 기운이 서려있으니 장사하는 곳의 직장을 잡아 장사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4	2	5		6	3	8	
	3							
9		5				7		
	9				4			
6			8		3			5
			2				1	
		1				8		7
							5	
	7	8	6		2	1	9	

1	8		5					4
4				1				
5	3	9						
			6		2		3	
	2		1	5	3		8	
	1		7		9			
						8	6	2
				6				3
6					5		1	7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신점[神占] 운세

월 2월 23일 (음 1월 5일) 사주스타 www.sajustar.com 060-700-8600

쥐 48년생 눈앞의 욕심보다는 주위 자문을 듣는게 좋습니다. 60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72년생 실수가 있더라도 대범하게 대처하세요. 84년생 조그마한 일에 더욱 충실해야 좋 때입니다.

소 49년생 자신의 생각을 굽는게 좋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고 격려해 주세요. 73년생 커다란 어려움에도 노력하면 결과는 좋습니다. 85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62년생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74년생 앞이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돕는 게 좋습니다. 86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토끼 51년생 때를 기다리며 먼저 힘을 기르세요. 63년생 얻기는 것을 얻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75년생 무리되더라도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87년생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용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작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뱀 53년생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말 5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66년생 혼자 하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옛사람의 말을 들으면 길합니다. 90년생 그 동안의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키고 성과가 있습니다.

양 55년생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67년생 인기를 얻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79년생 재물운과 이성운 모두 좋습니다. 91년생 혼자 차지하려 시샘을 갖고 나눌수록 이득이 더 늘어납니다.

원숭이 56년생 주위의 말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8년생 대인관계 각 필수적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80년생 선택을 해야한다면 동남쪽이 더 길합니다. 92년생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81년생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금 일이 좋습니다. 93년생 지금은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길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많게 주의하세요.

돼지 59년생 지금은 신중함보다는 자신감이 더 필요합니다. 71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83년생 어려운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95년생 친구나 지인과 만나면 즐거워집니다.

<정규·비정규직>

임금차 10년새 더 커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임금·근로조건 비교' 보고서 발표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과 142만3000원이었다. 또 10년 뒤인 2014년 8월 이들의 임금은 각각 359만8000원, 204만이다.

하지만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4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9.8원인데 반해 2014년에는 56.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11원, 7179원에서 2만397원과 1만1424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1원에서 68.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8원에서 66.1원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도 41.6원에서 40.7원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노조의 유무가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현재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대비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원에 불과해 10년 전의 44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윤재용기자 ysou@metroseoul.co.kr

황사 주의보 22일 안개 낀 서울 한강 동작대교 아래로 유람선이 지나고 있다. 이날 오전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내려졌던 황사주의보는 오후 1시를 기해 황사경보로 대체됐다. /연합뉴스

독도 홍보책자 나왔어요

전국 초·중·고-재외공관 등 우선 배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한 홍보책자가 외국에 있는 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 처음으로 배포된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부당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재외공관 그리고 한국교육원 등에 독도 교재 2종을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는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라는 홍보용 책자가 배포되는데 이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 해설을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김종만 독도 사진전'에서 소개된 독도 사진도 담겨 있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3월 중으로 배포하고 역사 문제 해외 홍보 사이트인 코리아넷을 통해서도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라는 교사용 수업 참고자료 1만5000부를 신학기에 맞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독도 고문헌과 고지도, 사진 등 자료 60여 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일상으로 설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초·중·고교생 1만8402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녀 중·고등학생과 여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조사에는 초등학생 7만3262명, 중학생 6만2203명, 고등학생 4만4937명이 응했다.

또 이들 중 초등학생은 87.1%, 중학생은 68.4%, 고등학생은 70.5%가 희망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밝힌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남학생은 9.0%가, 고등학교 여학생은 15.6%가 각각 교사라고 응답해 희망 직업 중 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남학생은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5.0%)과 회사원(4.5%) 등을 선호했으며 여학생은 교사 다음으로 연예인(3.6%)을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중학교 남학생의 희망 직업은 교사가 8.9%로 1위였으며 의사(5.8%)와 운동선수(5.5%), 경찰관(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학생 역시 교사가 19.4%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7.4%)과 의사(6.2%), 요리사(3.5%) 등의 순으로 희망 직업 선호도가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교사가 17.8%로 최다 지지를 받았지만 남학생은 운동선수가 21.1%로 1위에 올랐고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10.5%)과 의사(7.9%)를 생각하는 인원이 많았다.

/조현정기자 jh@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자 등 장학금 지원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 2500명에게 장학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100억원)보다 2배로 커졌으며 예비 창업 대학생도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창업 강좌를 이수하고 창업할 예정인 대학생 20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창업교육을 위한 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학생 2300명에게도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조사해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석용기자

인사

■산림사업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은호

■외환은행
지점장 전보 ▲상수역 김지선 ▲여의도중심 이인 ▲인사동 겸 SRM 한태균 ◇SAM(Senior Account Manager) 전보 ▲공덕역 박용규 ▲화정역 심재훈 ◇본점부장 전보 ▲부동산금융부 허만욱 ▲인사부 오화영 ▲청조금융지원센터 박귀호 ▲총무부 장길준 ▲투자금융부 우경호 ◇본점팀장 전보 ▲글로벌사업부 신기현 ▲기업사업부 이희걸 ▲리테일사업부 이종현

부고

▲김경학씨 별세, 황병호(전 충북도청 공보과장)씨 모친상, 황선택(YTN 위성센터 특파원)씨 조모상 = 21일 오전 8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모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3일 오전 10시, 장지 충북 괴산군 남일면 화령리 선산 (043)270-8401

▲김순원씨 별세, 이노근(새누리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20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970-1550, 010-8717-7174

▲김재순씨 별세, 김두진(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기관)·호진(KNN 경영국장) 감진(아이에스동서 차장)씨 부친상, 유명종(사업)·박용주(신미래건설 소장)씨 장인상, 조재은(부천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 21일 오후 6시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호,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53)961-4444

▲박이남씨 별세, 장필근(청주 일신여고 교사)·정근(익산초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기석종(충북 괴산군 주민복지실장)씨 장모상 = 21일 오전 1시, 충북 진천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043)532-4404

▲박재점씨 별세, 박정욱(STX조선해양 상무)·승욱(오트리브 코리아 부가)·승희(개인사업)·은경 개인사업)씨 부친상, 김한중(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씨 장인상 = 20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10-4546-9801

▲송선숙씨 별세, 박찬봉(전 5.18 광주유공자유족회장)씨 부인상, 박향균·찬균·찬웅씨 모친상 = 21일 오전 9시 30분, 발인 23일 오전 9시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062)627-1000

▲염족씨 별세, 임석훈(서희원 원장) 경훈(서울대 치의학교학부 교수)·경옥씨 부친상, 어광혜(학원드 전 대표)씨 장인상, 김혜란(노스 넥사스대 교수)·한미란(계에른자산운용 상무)씨 시부상 =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58-5940

▲조금자씨 별세, 송경혁(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씨 장모상 = 22일 오전 3시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실,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42)257-4461

▲전종숙씨 별세, 남성원(청주시 안전행정국장)·호현 지금언씨 모친상 = 21일 오전 8시 청주그린장례식장 특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43)271-6150

흡연 경고그림 통과 '글쎄'

24일 복지위 재논의…저가 담배 검토 등 여야 신중한 접근 강조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번번이 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재논의된다. 하지만 경고그림 도입은 이번에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법안 소위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24일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경고그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협의대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경고그림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판매량이 감소한 점과 혐오그림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24일 당일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사회적인 관심이 아동학대에 쏠린 만큼 자칫하면 경고그림 의무화가 관심 밖으로 밀릴 수도 있는 셈이다.

설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것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담배업계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국가의 흡연율 감소가 TV 광고 확대 등 금연정책의 결과일 수 있으며 심가포르는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경고그림을 도입해도 1년 8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등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소위에서 경고그림 도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희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천수만에 나타난 황새 '미호' 지난해 한국교원대 청람 황새공원을 탈출했다가 10개월만에 천수에 모습을 드러냈던 황새 '미호'(오른쪽)가 22일 천수만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 이어져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일본이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매년 자행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 제작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의 모임인 독도향우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올해도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해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황재용기자

설날에도 구제역 몸살 22일 방역당국이 설연휴 동안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시 도축장의 한 돼지농장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갑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남 무안 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난 1974년 긴급조치 폐제와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폐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과 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 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초등생 성폭행 교사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정기자

의무소방원 접수 개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이동성)가 다음 달 2일까지 제24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따른 군 대체(전환)복무의 하나로 응시 희망자는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험은 1차 체력시험과 2차 필기시험, 그리고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30일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